

고2 문학
금성

1(1). 춘설 - 서술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열자 선뜻!

㉠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2.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의 1연이 창의적인 이유를 쓰시오.

<보기>

보통 시에서 추위를 나타낼 때에는 외적인 '손발의 추위'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이 시와 <보기>의 시에서 봄의 생명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를 찾고, 각각의 표현 효과를 서술하시오.

<보기>

春雨細不滴(춘우세부적) 봄비가 가늘어 방울도 듣지 않더니

夜中微有聲(야중미유성) 밤중에 약간 소리가 나는 듯 했네.

雪盡南溪漲(설진남계창) 눈 녹아 남쪽 개울에 물이 불었거니,

多少草芽生(다소초아생) 풀싹은 이미 얼마나 돋았는고.

- 정몽주, '춘흥(春興)'

1.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담긴 화자의 내면 심리는 무엇일지 추측하여 쓰시오.

4. 이 시의 제목 ‘춘설’과 <보기>에 밑줄 친 ‘춘설(春雪)’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보기>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옛 피던 가지에 피엄직도 하다마는
 춘설(春雪)이 난분분(卵粉紛)하니 필 동 말동 하여라

- 출전 : 청구영언

<조건>

-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양쪽에 대하여 모두 논할 것

5. 이 시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보기>

1930년대 일본은 조선의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을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적 현실 문제를 다루는 예술 작품들의 창작이 억제되면서 순수 지향적 예술 작품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학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고 순수한 인간의 정서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6. ㉠와 같이 감각이 전이된 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서술할 것

7. ㉡에서 감각이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시구의 의미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8. 위 작품과 <보기>의 작품에서 춘설에 대해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가) 이역에서 봄을 맞으나 봄인 줄 모르다가
 아침결에 눈송이 새로 날리는 것 놀라며 보네.
 외물의 변화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지니
 봄날의 기운은 분명히 이 몸에 있기에.

-최명길, ‘춘설(春雪有感)’

(나) ‘춘설유감’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선양에 억류되었던 최명길이 지은 한시이다. 화자는 가뜩이나 봄이 더디게 오는 선양 지역에 눈까지 내리니 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외물에 휘둘리기 보다는 마음속으로부터 ‘봄기운’을 발견하려는 화자의 다짐이 잘 느껴진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열자 ㉠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움짚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9. <보기> ㉠~㉢의 밑줄 친 내용과 관련하여 위 시의 특징을 각각 서술하시오.

<보기>

시 문학파는 1920년대 프로 문학과 민족주의 문학의 대립으로 인한 이념적 문학 풍토에 반발하면서 등장하였다. 시 문학파의 시인들은 ㉠감각적인 시어의 조탁과 ㉡음악성을 위주로 한 표현, ㉢순수 서정 세계의 표출, 시의 본질에 대한 탐구 등을 주된 목표로 삼으며 1930년대 문학의 한 틀을 구축하였다.

10. ㉡의 의미를 '서러워라'와 '낮설어라'로 해석했을 때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11. 마지막 연을 '겨울의 추위를 더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해석했을 때와 반어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12. '봄을 맞이한 자연의 변화'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의 첫 어구를 찾아 쓰시오.

13. 위 시의 ㉡의 '눈'과 <보기>의 ㉣의 '봄눈'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이마의 추위'는 단순한 눈 내린 산정의 감각적 묘사에서 그치지 않고 '춘설'과 '꽃샘추위'에 새로운 시적 부가 가치(附加價値)를 부여한다. '춘설이 난분분하니 필 동 말 동 하여라.'의 옛시조나 ㉣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같은 한시의 상투어들은 봄눈이나 꽃샘추위를 한결같이 봄의 방해자로서만 그려 낸다. 그러한 외적인 '손발의 추위'를 내면적인 '이마의 추위'로 만들어 낸 이가 시인 지용인 것이다.

그에게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은 어느 꽃보다도 더욱 봄을 봄답게 하고 그 감각과 의미를 새롭게, 그리고 진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봄눈이 내린 산과 '이마받이'를 한 지용은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라고 노래한다.

14. <보기>는 이 시에 대한 평론이다. <보기>에서 ㉠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그래서 지용의 시 ‘춘설’은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로 끝나 있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우리의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 충격을 통해 비로소 달리는 속도를 느낀다. 봄눈이 바로 봄의 브레이크와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봄눈은 밤낮 내리는 것이 아니잖는가. 그러므로 꽃샘이나 봄눈을 통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겨울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꺼운 솜옷을 벗고 도로 추위를 불러들여야 한다. ‘새삼스레’, ‘철 아닌’, ‘도로’와 같은 일련의 시어들이 환기하는 것은 시간의 ‘되감기’이다. 그래서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용의 역설(逆說) 속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산골짜기 깊숙이 묻혀 살던 ‘드퀸시’의 오두막집을 상상하면서 쓴 ‘보들레르’의 글 한 줄을 생각하게 한다.

시인의 방과 그 나날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문 열기’ 이전의 닫혀 있던 방, 햇옷을 입고 있는 좁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이전, 지용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옹송거리고’ 사는 겨울 시간이다. 바깥이 추울수록 그 내부의 공간은 한층 더 아늑하고 따뜻하며 눈보라가 치는 긴 밤일수록 그 시간은 더욱 고요하고 천천히 흐른다.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닫힌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고 바깥세상과 ‘이마받이’를 하는 ㉠ 행복한 충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느끼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소원을 품게 된다. 그러한 소망의 원형이 바로 ‘봄눈’이며 ‘꽃샘추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용에 의해서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의 휘방꾼’이었던 ‘봄눈’과 ‘꽃샘’이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5. 이 시의 특징을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 세 가지를 서술하되, ‘표현’과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
- 완전한 문장 형태로 서술할 것.

16. 이 시의 1)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쓰고, 2)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17. 위 시의 ㉠에 느낌표를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 한 문장으로 서술하되, ‘표현’과 ‘화자의 마음’을 언급할 것.

18. 위 작품의 작가와 <보기>의 작품의 작가가 어떤 경험을 미적으로 인식했는지 경험의 대상을 각각 쓰시오.

<보기>

꿈에, 나는 소학교 교실에 있었다.
 글을 쓰려고, 선생님께 내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여쭙었다.
 “어렵지.”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나를 힐끔 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옛날 어떤 집에서 아들을 얻어 집안이 온통 축제 판이었단다. 만 한 달이 되어, 잔칫날 손님들에게 아이를 보였겠지? 물론 덕담을 들으려고 말이야. 그날 온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애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지.
 — 우와, 이 아이는 크면 부자가 되겠는데요.
 부모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고마워했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말했단다.
 — 이 녀석, 크면 높은 벼슬하겠습니다.
 주인도 답례로 그에게 덕담을 해 주었지.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단다.
 — 이 아이는 분명 죽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죽도록 때렸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할 거라는 건 거짓말일 수도 있지. 그런데 거짓말은 좋은 보답을 얻었고, 진실은 죽도록 얻어맞은 셈이지. 너는……?”
 “선생님, 저는 거짓말도 하기 싫고, 얻어맞기도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지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려무나. 우와—! 이 아이는 정말! 이걸 보세요! 얼마나……. 어이구! 하하! 허허허! 헛, 허허허!”
 - 루쉰, <헛, 허허허!>

19.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먼 산이 이마에 차라.’에서 ()적 이미지를 ()적 이미지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 ‘서늘옅고 빛난 이마밭이하다’는 ()적 이미지와 ()적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화자가 눈 덮인 산을 ()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에서 ()적 이미지를 ()적 이미지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답> 봄을 맞는 반가움과 겨울이가는 허전함을 동시에 느끼며 새삼스레 겨울의 추위를 느끼고 싶어 한다.

2. <답> 외적인 '손발의 추위'를 내면적인 '이마의 추위'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보통 시에서는 추위를 외적인 추위로 나타내는 것에 비해, 이 시의 1연에서는 '이마의 추위'라는 내면적인 추위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 시의 창의성이 나타난다.

3. <답> 이 시는 시각, 촉각,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생동감과 신선함이 생생하게 잘 전달된다 <보기>는 시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조용한 밤에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봄의 자연 변화를 상상하는 화자의 설렘이 잘 나타난다.

4. <답> 이 시의 '춘설'은 봄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춘설'을 통해 봄의 신선한 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려져 있지만 <보기>의 춘설은 봄의 방해하는 존재로만 그려지고 있다.

5. <답> 1) 감각적 심상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함. 2) 시어를 정밀하게 다듬어 시 속에서 음악성을 느끼게 함. 3) 봄눈 내린 풍경을 보고 봄의 생명력을 느끼는 인간의 순수한 서정 세계를 형상화함.

6. <답> 눈 덮인 먼 산을 보고 난 뒤 화자의 놀라움을 인상적으로 드러내 준다.

7. <답> 시각적 심상인 봄바람에 흔들리는 흰 옷고름이 후각적 심상으로 전이되어 마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다.

8. <답> 위 작품에 화자는 겨울이 가는 아쉬움과 봄이 오는 반가움을 동시에 느끼고, 반면에 <보기>의 화자는 외물보다는 마음먹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 <답> ㉠ : '먼 산, 차라, 서늘옅고 빛난, 향기로워라.'와 같이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 : '웅송그리고, 파릇한, 움짓하니 기던, 오물거리는데' 등 시어를 정밀하게 담듬어 시 속에서 음악성을 느끼게 하였다. ㉢ : 풍경을 보고 봄의 생명력을 느

끼는 인간의 순수한 서정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10. <답> '서러워라'로 해석한다면 겨울일 이기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생기를 찾는 자연의 모습이 마치 꿈과 같아서 서러운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이에 겨울이 지나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한 마음도 함께 드러난다. '낮설어라'로 해석한다면 웅송그리며 겨울을 지내다 봄의 생명력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모습이 낮설게 느껴진다. 동시에 봄을 새롭게 맞이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1. <답> 겨울의 추위를 더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해석했을 경우 : 겨울이 가는 허전함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반어적으로 해석했을 경우 : 추위를 느끼더라도 햇빛을 벗어 던지고 봄을 반기고 싶다는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답> 얼음

13. <답> ㉠은 '눈'을 통해 봄의 신선한 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은 '봄눈'을 봄의 방해자로만 그리고 있다.

14. <답> 상황의 갑작스런 전환을 통해 외부 현실을 깨닫게 되는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15. <답>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나타낸다.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다. 종결 어미 '-아라/어라'를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16. <답> 1) 눈과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시기(초봄), 아침 2) 우수절, 초하루 아침

17. <답>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갑자기 찾아온 봄기운에 놀란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18. <답> 위 작품(춘설): '봄눈'이라는 자연 현상, <보기>(헛, 허허허허!): 거짓을 말해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태나 사회 현상

19. <답> 시각, 촉각, 촉각, 시각, 가깝, 시각, 후각